



[산업]
KT
블록체인·AI기반
전력중개사업 시스템 개발
04



Life

[라이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첫 주말 유세 초점
'시민'·'평화'에 맞춰
L7



택배는 우리 삶의 일부, '땀의 대가'는 정직 합니다

“땀동~ 기다리는 고객위해 새벽부터 정신없죠”



택배기사 허익준 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대세인 요즘,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소확행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택배’라고 말하는 이들이 꽤 있을 것이다. 온라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신중하게 고른 물건을 기다리는 설렘은 누구나 한번쯤 가져봤기 때문이다. 이처럼 택배 서비스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택배가 우리에게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들이 바로 전국에서 활동 중인 택배기사다. 기자가 만난 허익준(47) 씨도 대전에서 7년째 택배기사로 활동하면서 고객들이 주문한 물건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에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처음 택배기사 일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마흔을 앞둔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나이에 해당 분야 경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은 많지 않았죠.”

허 씨가 택배기사 일을 고민하게 된 시기는 6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부터다.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이미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던 작은 형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택배기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때 마침 작은 형이 택배기사 일을 해 인선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모습을 보고 성실히 하기만 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처음에는 아내와 가족들이 반대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택배기사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고, 가장 고된 직업 중의 하나로 인식돼 있었기 때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허익준씨가 자신의 배달 차량에 실을 택배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배달을 대기 중인 차량들.
▶ 허익준씨가 자신의 배달 차량에 배달할 택배 물건을 싣고 있다. /최신용기자



경영난으로 식당 문 닫고 택배 시작하는 만큼 이익 얻는 성실한 직업

고된 업무·정신적인 피로 힘들어 배달 물량 많을 때는 식사 거르기도

택배기사에 대한 인식 좋아진만큼 특수노동자 불이익 점차 해소되길

문이지요.”

실제로 허 씨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생각보다 더 고된 업무 강도에 깜짝 놀랐다고 말한다.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업무에 따른 육체적인 피로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지만, 물품 분실과 고객 항의에 대한 대처 등 의외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 씨는 2년 정도 버티고 일을 하니 이후 부터는 자신감이 생겨 이제는 정신적인 피로를 많이 느끼지 않게 됐다고 말한다.

허 씨의 하루는 평균 새벽 5시에 시작된다. 5시에 일어나 6시까지 영업소에 도착해 오전에 자기가 맡은 구역에 배달될 물품을 분류하고 오후부터 밤 10시 정도까지 물건을 일일히 배달하는 일이 계속된다. 월요일

이 가장 한가해 오후 2시 정도면 일을 마치고, 가장 분주한 화요일은 밤 11시 정도에 일이 끝나기도 한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허 씨가 하루에 배달하는 택배 물량은 평균 500여 개 정도. 한 달에 허 씨가 손에 쥐는 액수는 400~500만원 정도 된다.

또한 허 씨가 말하는 택배기사란 직업의 장점은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여름 휴가철 1~2달 정도가 비수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도 평상시보다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빠질 뿐,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 대신 추석 연휴를 비롯한 가을철에 각종 행사와 기념일 등으로 늘어난 물량이 비수기의 적자를 보충해준다.

“택배기사 일이야 말로 자기가 하는 만큼 이익을 얻는 가장 성실한 직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받는 이들은 한 달에 6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 이 정도 수익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죠. 물론, 일이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화요일처럼 배달해야 할 일이 많은 때는 점심을 거르기도 하고, 잠이 부족할 때도 많죠. 그래서 보통 잠을 쫓으려고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그러는데, 보통 택배기사들은 우스갯소리로 ‘카페인, 니코틴, MSG, 알콜’이 택배기사들의 4대 영양소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7년 동안 택배기사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니뭐니해도 고객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허씨는 강조

한다.

“7년 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상처받았던 것 중 하나는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이 반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거였죠. 그래서 싸운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 반대로 고생한다면서 물 한잔 건네거나 빵 같은 먹을 거를 주는 분들도 계셨죠. 그런 분들을 만난 날은 아무 리 일이 힘들어도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처럼 택배기사를 무시하는 인식도 많이 사라져 한결 일하기 수월해졌다는 허 씨, 그는 마지막으로 현재 택배기사가 특수노동자로 분류돼 있어 받게 되는 불이익들도 점차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택배기사가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보니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우리를 고용한 대기업에서 업무를 우리들에게 넘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개인적인 업무 처리에도 시간이 모자라 노조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정부에서는 현재 택배기사들에게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주유를 할 수 있도록 주유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혜택 하나만으론 많은 도움은 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한 번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택배기사에 대한 인식이 점차 좋아졌던 것 만큼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택배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글·사진=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